



코스피 2175.54 (+20.47)	코스닥 663.44 (+8.13)
금리 (미국 3년) 1.33 (+0.05)	환율 (원-달러) 1166.40 (-5.70) (7일)



[산업]
구자열 LS회장
신임 임원들에
모험가적 리더 주문
06



7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을 찾은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 중계를 보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경제활력 되찾고 공정사회 느끼게”

文 대통령, 경자년 신년사

좋은 기업투자 환경 위해
투자 인센티브 더욱 강화
‘부동산 투기 전쟁’ 선포
서민 주거 보호에도 만전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경자년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나아진 경제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새해 국정운영 포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7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경자년(庚子年) 신년사를 발표하며 집권 4년차 국정운영의 ‘큰 그림’을 국민들에게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혁신·포용·공정을 통한 ‘상생도약’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국정 전반을 아우르는 양대 지향점으로 제시했다. 이어 ‘집권 4년’인 올해에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이끌어낼 것임을 약속했다.

우선 문 대통령은 “2020년은 나와 이웃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경제가 힘차게 뛰며,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민들께서 혁신·포용·공정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공정은 우리 경제와 사회를 둘러싼 공기기도 같다”며 “공정이 바탕에 있어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우리 경제사회가 숨 쉴 수 있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경제와 관련해 ‘확실한 변화’를 강조한 것은 올해 여건이 작년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깔려있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목표로 2.4%를 제시했다. 이는 작년 예상치 2.0%보다 0.4%p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회복 전망은 올해 세계경제가 점차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가 증폭 중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더 좋은 기업 투자 환경을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총 100조원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투자 촉진 세제 3종

세트’와 같은 투자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인고의 시간”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평화를 향한 신념과 국민들의 단합된 마음이 절실한 시점이다. 우리에게 한반도 평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고 했다. 이어 “평화를 통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은 궁극적으로 평화경제”라며 “올해는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다. 평화통일의 의지를 다지는 공동행사를 비롯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답방을 위한 여건이 하루빨리 갖춰지도록 남북이 함께 노력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인 평화경제 비전으로 “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 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남북이 함께 찾아낸다면 국제적인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남북간 관광개개와 북한의 관광 활성화에도 큰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주택 공급의 확대도 차질 없이 병행해 신혼부부와 1인 가구 등 서민 주거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부연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metroseoul.co.kr

정의선의 현대차, 비행체로 모빌리티 선도

CES 2020 현대차그룹

정의선 수석부회장 ‘미디어데이’
개인항공기 2028년 상용화 목표
국내·외 동시 상용화 추진 계획



‘CES 2020’ 개막을 하루 앞둔 6일 오후(현지 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베이 호텔에서 열린 현대차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이 UAM(도심 항공 모빌리티)의 상용화 시점을 2028년으로 전망했다.

정의선 수석부회장은 6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베이 호텔에서 ‘CES 2020’ 미디어데이 행사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UAM 상용화 시점을 묻는 질문에 “2028년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정 수석부회장은 지난해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모빌리티 이노베이터스 포럼(MIF) 2019’에서 2029년부터 개인항공기(PAV) 상용화 서비스가 목표라고 말했다. 이날 밝힌 상용화 일정은 지난해 11월에 비해 1년 앞당겨진 것이다.

현대차그룹은 UAM을 국내와 해외에서 동시에 상용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UAM은 ‘개인용 비행체’(PAV·Private Air Vehicle)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이동 통로로 이용하는 서비스다.

현대차는 이날 미래 모빌리티 비전 구현을 위해 신개념 모빌리티 솔루션으로 ▲UAM(도심 항공 모빌리티) ▲PBV(목적 기반 모빌리티) ▲허브(모빌리티 환승 거점)를 제시했다. 또 PAV(개인용 비행체) 콘셉트 모델을 공개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UAM은 해외뿐 아니라 국내도 같이 할 계획”이라며 “법

규나 제도가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정부와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쟁사와의 비교해 장단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아직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장단점을 말할 수 없다”면서 “각자의 전략이 있어 4~5년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지금은 단정짓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 현대차그룹이 차지하는 위상에 대해 “투자도 많이 하고 좋은 파트너들과 협력도 하고 있다”며 “더 훌륭한 인력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더 편하고 고객에게 편한 것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대차가 준비하고 있는 UAM에 대해 정부도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상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현대차 미디어데이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UAM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지난해에 미래드론교통과를 신설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올해를 UAM 실현을 위해 중요한 해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드론 교통과를 신설한 바 있다.

/라스베이거스(미국)=양성운 기자 ysw@



겨울비 내리는 날 전국에 겨울비가 내린 7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시민들이 우산을 쓰고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풍선효과… 非규제지역 아파트 경쟁률 신기록

정부가 초고강도 부동산규제정책을 쏟아내면서 규제에서 자유로운 수도권 내 아파트 분양시장에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중도금 대출한도가 여유롭고 전매제한 기간이 짧은 아파트에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 정부는 15억원 초과 아파트 대출 금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종합부동산세율 상향 등 전방위 규제를 담은 12·16 대책을 내놓았다.

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분양한 경기도 안양(아르테지아) 32.4대 1)과 안산(e편한세상 초지역 센트럴포레 19.65대 1), 수원(하늘채더퍼스트 88.16대 1) 등의 새 아파트 청약에서 모두 1순위에서 마감됐다. 청약경쟁률은

높았다. 비규제지역이란 점이 수요자들에게 투자 매력으로 부각됐기 때문이다. 비 규제지역은 전매제한이 6개월로 짧고 수도권 거주자라면 누구나 1순위 청약할 수 있다. 특히 유주택자나 세대주가 아닌 사람도 청약이 가능하다.

올해 전국 첫 마수결이 분양 단지로 관심을 모았던 동양건설산업의 ‘검단파라곤 센트럴파크’ 견본주택에는 지난 3일 개관 후 주말까지 3일간 4만여 명이 몰렸다. 개관 첫날인 지난 3일 8000여명을 포함해 주말 3일간 4만여 명이 다녀갔다. 이 아파트는 중도금 60% 이자후불제 혜택을 제공한다.

인천 ‘검단파라곤 센트럴파크’는 7

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8일 1순위, 9일 2순위 청약이 예정돼 있다.

지난해 11월 코오롱글로벌이 수원 권선구에서 분양한 수원 하늘채더퍼스트 1단지 청약경쟁률은 평균 88.16대 1, 2단지 경쟁률은 평균 42.88대 1을 기록했다. 특히 최근 당첨자를 발표한 무순위 청약에는 14가구 모집에 7만1222명이 몰려 508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무순위청약이란 1·2순위 청약 이후 부적격 처리된 청약자 물량을 대상으로 청약가점과 상관없이 무작위로 당첨자를 뽑는 것을 뜻한다.

<2면에 계속>

/정연우 기자 yw964@